

2012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일정 : 2012. 10. 24 ~ 11. 1(9일간)
- 연수국가 : 터키, 그리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목 차

- I. 연수 개요 1
- II. 연수국가 현황 3
 - 1. 터 키 3
 - 가. 일반현황 5
 - 나. 정치제도 7
 - 다. 지방행정제도 8
 - 2. 그리스 14
 - 가. 일반현황 15
 - 나. 정치제도 17
 - 다. 지방행정제도 18
- III. 연수내용 20
 - 1. 박물관 운영 벤치마킹 20
 - 2. 공공시설 방문 및 종교시설 견학 24
 - 3. 고대문화유적지 관리 비교분석 27
 - 4.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자료수집 29
 - 5.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수집 31
 - 6. 고대문화유적지 보호 실태 조사 34
- IV. 구정에 반영해 불만한 시책 36
- V. 연수를 마치며 38

2012.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I. 연수 개요

-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해외 선진지식 습득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 에게 해 연안국인 터키와 그리스의 문화자원 관리 현장과 전통시장 견학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함.

연수기간

- 2012. 10. 24(수) ~ 11. 1(목) 《7박9일》

연수국가

- 터 키 -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히에라폴리스, 에페소
- 그리스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연수내용

-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화 실태 분석
-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문화유적 기반시설 관리 실태 벤치마킹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 사례 조사
- 박물관 등 도심지 내 주민 편의·종교시설 운영 실태 견학
-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자료 수집 등

□ 연수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연령	비 고
			한 글	영 문		
	계		8 명			
1	서 구 의 회	의 장	장재성	JANG JAE-SEONG	49	
2	"	의 원	김수영	KIM SU-YOUNG	47	
3	"	의 원	오광교	OH KWANG-GYO	57	
4	"	의 원	김옥수	KIM OKE-SOO	50	
5	"	의 원	양영애	YANG YOUNG-AE	55	
6	"	의 원	황현택	HWANG HYEON-TAEK	52	
7	의회사무국	행정6급	허순석	HEO SOON-SEOK	46	
8	"	기능8급	정충광	JEONG CHUNG-KWANG	44	

II. 연수국가 현황

1. 터키 (Turkey)



□ 한국전쟁때 15,000명의 대규모 군인을 파병하여 피로서 지킨 나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임,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며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터키는

□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나토리아반도에 정착, 독립국가를 형성해 왔으며, 1281년에 설립된 오스만 제국은 1354년에 유럽에 진출하고 16세기에는 에게해와 흑해가 오스만 제국의 내해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예멘, 크림리아, 빈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17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측에 가담, 패전국으로서 1920년 8월 10일 연합국과 체결한 세즈강화조약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의 배후지와 아나토리아고원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느조약은 케말 파샤(Kemal Pasha)의 해방전쟁으로 비준되지 않았으며, 1923년 7월 24일 연합국과 터키간에 로잔조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1923년 10월 29일에는 터키공화국이 선포되고 케말 파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해 히타이트에서, 로마, 비잔틴제국, 오스만 대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간 곳으로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터키를 찾음과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화려했던 이슬람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이슬람국가로서 자리잡았다.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기본현황

- 수 도 : 앙카라 (인구 358만명)
- 인 구 : 7,400만명
- 면 적 : 783,562만km² (한반도의 3.5배 / 남한의 7.8배)
- 위 치 : 아시아대륙의 서부에 위치, 유럽대륙의 동남부 연결
- 도 시 : 앙카라(358만명) 이스탄불(1,200만명) 이즈미리(255만명)
- 민 족 : 터키족(86%) 쿠르드족(9%)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그리스인 등
- 언 어 :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 종 교 : 이슬람교(98% 다수가 수니파) 희랍정교, 아르메니아정교, 유대교 등
- 정부조직 : 대통령제 가미한 의원 내각제(5년 중임제, 의회에서 선출)
- 의회조직 : 단원제(임기4년, 의원 550석 직선)
- 전체 GDP : 7,418DJRQNF(2008년)
 - 1인당 GDP: 10,436\$ (2008년)
- 화 폐 : 터키리라(TRL) 1TRL -> 837원
- 주요자원 : 텅스텐, 우라늄, 납, 석유 등
- 주요산업 : 섬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목재 등
- 동포현황 : 약 1,058명(70%이스탄불 거주)
- 진출기업 : 현대자동차, LG전자, 만도기계, 삼성전자 등

1) 지리적 여건

터키는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수도는 앙카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남한의 7.8배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동쪽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란과 남쪽은 이라크, 시리아와 지중해, 서쪽은 에게해, 그리스 및 불가리아 그리고 북쪽은 흑해와 접경하고 있다.

지형은 북부에는 흑해와 평행을 이루는 산맥이 있으며, 남부에는 토로스 산맥이 해안을 따라서 비옥한 평지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 4대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명한 유프라테스강(2,781km)과 티그리스강(1,850km)이 동부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간다. 15개의 강과 함께 호수도 많으며 그 중에서 서도 반(Van) 호수는 면적 3,713km², 둘레 430km로 내해에 필적할 정도이다.

2) 기후적 여건

기후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온난한 흑해 연안, 내륙은 대륙성 기후 그리고 해안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화다습하다(연평균 18~20℃). 흑해연안은 연중 고른 강우량과 함께 기온의 일교차도 거의 없다(연평균 22~24℃).

3) 인구 및 종교

인구는 7,472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4배로서 70%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층이다. 민족구성은 터키족 (76.0%), 쿠르드족 (15.7%), 기타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등 (8.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98%가 이슬람교(대부분 수니파)를 믿으며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1923년 종교의 자유를 발표함으로써 이슬람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였다.

터키 거주 교민 수는 약 3,000명으로 이중 70%가량이 이스탄불에 거주한다.

4) 경 제

○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철강, 시멘트, 에너지, 화학 등 기간산업을 공기업 육성 책을 통해 발전시켰음.

○ 1980년대 이래 민간중심의 자유시장 체제로의 개혁이 추진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으로 1994년 극심한 경기침체와 위기를 겪었음

이후 1995~98년중 4~8%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친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재정적자 누적과 이에 따른 대내외 국가채무도 계속 누적되어

○ 1998. 7월 IMF의 Staff Monitored Program을 수용, 3년간 경제구조 조정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여 다소 안정을 찾기도 하였으나 1999년 대지진과 2000년 11월 주가지수 급락, 은행간 금리 급등등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고 2001년 2월 정치 불안과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으로 또다시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받게되어 시장은 다시 안정됨.

5) 양국간 교역 현황

한국-터키 양국간 교역은 90년 이후 연평균 15%가 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97년에는 11억 달러대의 교역량을 기록하였으나 98년 터키 경제 불황과 한국의 IMF 사태의 영향으로 양국 간 수입수요가 냉각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61억달러(수출 51, 수입10)로 증가했다. 2011년 기준 터키는 한국의 수출대상 21위국이며, 54위 수입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이며 수입 품목은 농산물, 철강 제품, 비금속광산, 수산물, 섬유제품 순이다.

특히 한국과 터키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활발한 편으로 서울, 부산,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터키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경북도는 2013년에 터키에서 '이stanbul-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13' 공동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나. 정치제도

○ 터키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다. 국회는 5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제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 터키 대통령은 7년 단임이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 이런 면에서 터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 책임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 책임제라고 볼 수 있다.

다. 지방행정제도

1) 지방행정 체계

○ 터키의 지방행정은 헌법 제123조와 제127조에 근거하고 지방행정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행정형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집권과 지방행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 전국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로 83개 주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2,841개의 시(Municipality)로 나누어져 있고 그 산하에 가장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인 35,504개의 빌리지(Village)가 있다.

○ 터키의 지방행정 체계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국가단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지리적 상황, 경제적 여건 및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에 근거하여 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방행정의 특징중 하나는 주 의회 의원과, 시와 빌리지의 단체장 및 의원은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반면, 주의 장인 주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주요 지방자치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Act on Municipal Authorities, No.1580), 빌리지 행정 관련법(Act on Village Administration, No.442), 주행정 관련법(Act on 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 No.3360)이 있다.

○ 자치시 설립, 분리, 통합과 빌리지의 자치시로의 통합 등은 주민 수 최소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은 주민 절반 이상이 주지사나 부지사에게 이에 대한 서명을 제출하거나, 주지사가 제안하게 된다.

2) 지방조직 현황

가) 빌리지(Village)

빌리지는 가장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이다. 전국적으로 35,504개의 빌리지가 있으나 현재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빌리지의 업무를 주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나) 시(Municipality)

도시화에 따라 자치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터키의 자치시는 195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자치시이면서 특별시인 이스탄불은 주민수 13,483천명으로 터키 최대도시이다.

< 주민수별 자치단체 현황 >

주 민 수	자치단체수	비율(%)
1,000명 미만	3	0.1
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1,916	67.4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397	14.0
10,000명 이상 ~ 50,000명 미만	356	12.5
50,000명 이상 ~ 100,000명 미만	70	2.5
100,000명 이상 ~ 500,000명 미만	79	2.8
500,000명 이상	5	0.2
특별시	15	0.5
총 계	2,841	100

다) 주(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터키의 주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격보다는 중앙정부와 시, 빌리지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독특한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건강, 교육,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83개의 주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터키의 지방의회는 주의회와 시의회, 빌리지 의회가 있다. 주 의회와 시의회 의원은 투표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빌리지 의회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가) 빌리지(Village)

빌리지 의회(Council of Elders)는 직접민주주의 예로서 모든 지역유권자로 구성된다. 빌리지 의회는 특정한 행정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법 규정에 의해서 선택적이라고 규정된 특정한 세금에 관해서 만약 빌리지 의회가 의무적이라고 결정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빌리지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위원과 비선출직(당연직)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수는 8명에서 12명 사이로 빌리지의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비선출직 위원은 빌리지의 학교 교장과 신앙심이 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빌리지 대표의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을 결정하며, 빌리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등을 수행한다.

빌리지의 장은 “Muhtar”라 칭하며 공무원중 빌리지 의회에서 선출한다. 빌리지의 장은 정부사업과 지역사업에 관여한다.

나) 시(Municipality)

시의회 의원은 5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의 수는 각 시의 인구수에 따라서 9명에서 55명으로 이루어진다.

시 집행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의원들과 시청 공무원중에서 구성된다. 시의원 수는 2명이상으로 하되 시청 공무원 수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시 의회의 의원이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면직대상이 된다.

시장은 5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시장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 하나 일단 시장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의 행정적인 직위는 사임해야 한다.

시장과 시 집행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종 발언권이 있는 시 의회가 우선권을 갖는다. 시장이나 시 집행위원회가 의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주지사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그럴 때, 최종 결정은 주지사가 담당하는 행정의회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는 결정하기 전에 주지사를 통해 분과 위원회의 견해를 듣도록 하고 있다.

다) 주(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주의 의결기관은 주 의회이다. 주 의회 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한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정치적 책임자이며, 정부대표이다. 주지사는 각료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한다. 주지사는 병무와 사법 행정을 제외한 중앙정부 관련업무 외에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포함하여 주 정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지사는 시의회의 지역예산 수정과 승인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감독은 지역의회 결정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된다. 주지사는 주 의회에 연간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주 의회가 2/3의 투표로 불만족을 표시하면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정부와 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

1930년에 제정된 자치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자치시에 폭넓은 분야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법은 자치시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들을 완료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 무 분 야	해 당 기 관		
	정 부	중 간	기 초 지 자 체
일 반 행 정			
안전, 경찰	●		
소방업무			●
시민보호	●		
사 법	●		
주민등록	●		
통계업무	●		
선거인등록	●		
교 육			
취학 전 아동 보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직업, 기술 교육	●		
대학교육	●		
성인교육	●		
공 중 보 건			
병 원	●		●
예 방	●		
사 회 복 지			
탁아소, 어린이 집	●		
가정복지	●		
보 육	●		●
사회안전	●		

업 무 분 야	해 당 기 관		
	정 부	중 간	기초 지자체
주택 및 도시 건설			
주 택	●		●
도시계획			●
국토정비	●		●
환 경			
상수도 및 하수도			●
청 소			●
장 례			●
도 축			●
환경보호	●		●
소비자 보호	●		●
문화, 레저, 체육			
연극, 콘서트	●		●
박물관, 도서관	●		●
공원, 녹지			●
스포츠 및 레저	●		●
종교시설	●		
기타 문화활동	●		●
교통, 도로, 통행			
도 로	●		●
교 통	●		●
도시도로 대중교통			●
도시철도 대중교통			●
항 만	●		
공 항	●		
경제 서비스			
가 스	●		●
구역난방			●
수도공급			●
농, 임, 수산업	●		
전 기	●		
상 공 업	●		
관 광	●		●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 세수입

터키의 지방정부는 주로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한다. 자치시는 자치시 수입법에 근거하여 특별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세 법을 근거로 부동산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외에도 자치시 재정은 전기와 가스세, 화재보험세, 환경미화세 등과 같은 세금을 통해서도 충당된다.

빌리지의 빌리지세는 법적으로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인두세(주민세)와 공공서비스세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세금도 도입할 수 없다.

대도시의 경우 이 세금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들 중 통상적으로 약 15%정도를 차지한다.

나) 보조금

정부는 정부에서 거둔 세금 중 9.25%를 자치시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자치시 보조금 비율은 인구 수, 도시화 및 관광유치 가능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할당된다.

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국가정부 수입 중 1.70%이다. 주에서는 이외에도 자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는 주의 전체 수입 중 1.5% 정도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 기타 수입원

자치시의 기타 수입원은 수입세를 포함한 시 총수입 중 50.32%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치시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7.71%)이나 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얻는 수익(4.84%) 등을 들 수 있다.

주의 기타 수입원은 수입세를 포함한 총 수입 중 80.79%를 차지한다. 그 중 특별수입이나 특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주 정부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8.23%)을 들 수 있다.

2. 그리스 (Greece)



□ 그리스의 역사는 약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유럽 문화의 발상지로서 그리스의 고유한 문화가 성립된 것은 기원전 750년경 부터이다. 즉,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하여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정치적·군사적 권력이 강화되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가 건설되게 되었다. 그 후로 귀족과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자 기원전 6세기 초에 타협적 개혁의 성격을 지닌 솔론의 개혁에 의하여 금권정치가 실시되었고, 같은 세기 중반에는 강력한 지배자에 의해 사회적 혼란상황을 다스렸던 참주정치(僭主政治)가 행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원전 6세기 말에는 클리스테네스가 도편추방법(陶片追放法 : 오스트라시즘)을 제정하여 참주의 출현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가 시작되었고,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말에는 민주정치가 선동정치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타락하였고, 내전인 펠로폰네소스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마케도니아에 의하여 기원전 4세기에 정복되었다. 그 후로 로마·오스만투르크 등의 지배를 줄곧 받아오다가 18세기부터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에 자극되어 터키에 대한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드디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 하에 1830년 2월 런던의정서에 의해 독립이 보장되었으며, 3월 25일 정식으로 독립왕국이 수립되었다.

□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로 올림포스 산에서 올림픽 성화를 채화한다. 찬란한 고대문명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 신들의 제왕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랑의 신 에로스 등 고대 그리스 신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질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으로 지중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 일반현황 (2011년 현재)

그리스(Greece) 기본현황

- 수 도 : 아테네(Athens/인구의 약 4백만명이 거주)
- 정 치 : 의회주의, UN, NATO, EU 가맹국
- 인 구 : 약 1124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131,986km² (한반도의 3/5)
- 주요도시 : 아테네, 테살로니케, 피레우스, 델포이
- 주요민족 : 희랍인(97%), 터키인 등 기타(3%)
- 주요언어 :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종 교 : 그리스정교(Greek Orthodox : 98%), 이슬람교(1.3%)

1) 지리적 여건

그리스의 정식 명칭은 헬레니 공화국(Hellenic Republic)이다. 유럽 남동부의 발칸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0.7배, 남한의 1.3배로서,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와 일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불가리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가 있다.

그리스는 터키와 같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이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유물과 융합된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고대 희랍 문화와 더불어 초기 기독교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도 16곳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연평균 1,400만명(세계 관광객수 13위)이 그리스를 찾는다. 관광 수입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GDP의 15%를 차지한다.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발원지이자 민주주의 사상의 탄생지이며, 서양 철학, 올림픽의 근원지로서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언어 및 종교

국민의 98%가 대서양·지중해형 인종으로 구분되는 순수 그리스인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종교를 중심으로 전통·혈연·지연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교육

교육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0~65%가 대학을 진학하며 사립대학을 금하는 특이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4) 경제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케인즈식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 부담과 유로존의 환율

정책의 부재,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의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2007~2009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교역상황과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스에는 현재 3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5) 사회보장

국가에서 관장하며 모든 국민은 의료혜택과 연금을 받는다.

모든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관에 가입해야 하며, 매달 봉급의 43.86%(피고용자 15.90% + 고용주 27.96%)를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나. 정치제도

그리스는 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제청한 각료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군통수권과 총리 요청시 의회해산권, 법률 공포 및 조약비준권 등 국가 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총리 및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일반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 총리는 다수당의 총재로서 대통령이 의회의 추천에 따라 지명하고,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모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내각은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 하에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국회는 단원제로서 정당비례대표제에 따라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임기는 4년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12명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원으로 총당되며, 288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2012년 5월 총선 결과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으로써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2012년 6월 17일 다시 총선이 치러져서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다. 지방행정제도

1) 지방행정 체계

그리스는 지방행정 체계는 과거 13개의 주(Region), 54개의 도(Prefecture), 900개의 시 (Municipality)와 133개의 군(Community)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방행정조직합리화 (Kallikratis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 수를 1034개에서 325개로 대폭 줄였다.

현재는 7개의 지방(Administrations), 13개의 주(Region)와 325개의 시 (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주와 시는 모두 지방자치로 운영된다.

7개의 지방분권지역의 책임자는 정부가 임명한다.

2) 지방조직 현황

가) 지방(Administrations)

2010년 Kallikratis 개혁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임명한 주(Region) 책임자 제도는 폐지되고, 주지사과 주의회는 지방선거에 의해 직접 구성된다. 대신 1~3개의 주를 묶어 구성한 7개의 지방분권지역의 책임자를 정부가 임명하게 되었다.

나) 주(Region)

그리스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3개의 주(그리스어 알파벳으로 περιφέρειες)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는 본토에, 나머지 4개 주는 도서지역에 소재한다. 본토와 도서지역의 여부에 따라서 주의 인구와 면적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본토에 위치한 9개 주 중 가장 넓은 주는 Central Macedonia로 전 국토의 14.3%(18,811km²)를 차지한다. 이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로서 수도 아테네가 위치한 Attika(면적 3,808km²)보다 6배나 큰 규모이나 Central Macedonia의 인구는 171만명으로 Attika의 인구 352만명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다) 시 (Municipality)

그리스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로 900개의 시 (Municipality)와 133개의 군(Community)을 2010년 지방행정조직합리화 (Kallikratis 개혁) 계획에 따라 325개의 시로 축소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가) 시 (Municipality)

시의회는 인구 규모에 따라 의원수가 정해진다. 시의원은 매 4년마다 정당명부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리스 지방 의회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의석의 3/5을 배분하며, 나머지 2/5석은 다른 정당들이 구성하게 된다.

자치시의 시장은 선거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의 대표가 된다. 자치시 집행위원회는 자치시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4) 정부와 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

기초지자체법 제24조에 자치시가 지역 사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신적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의 지방행정분산 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서, 주에서 국가의 권한으로 이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전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을 진다. 주는 기초지자체를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행정분산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가) 세수입

그리스 지자체의 세수원은 크게 정규 수입금(Ordinary revenue)과 특별 수입금(extraordinary revenu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규 수입금은 법이 규정하는 국가 보조금, 재산세, 서비스에 대한 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 수입금은 후원금, 대출, 자산매각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규 수입금은 크게 국가 보조금, 부동산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 보조금은 매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며, 법인세의 20%, 교통세의 50%, 재산양도세의 3%등이 있다.

부동산세는 지자체 수입원의 1/3을 충당하는데, 재산임대세 및 양도세가 주를 이룬다. 부동산세의 1/3은 지자체 발전 투자비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지출로 사용되는 다른 세수입과 다르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주로 위생관리, 상수도 등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다.

나) 기타 수입원

자치단체의 기타 수입원으로는 교통법규위반 벌금, 옥외시장법위반 벌금, 소음 및 오염에 따른 벌금, 점포 및 기업 허가 발급에 대한 요금 등이 있다.

Ⅲ. 연수내용

□ 박물관 운영 벤치마킹

▶ 이스탄불 (옛 이름은 Constantinople, 고대 이름 Byzantium)

터키와 그리스를 가기 위해 연수단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륙, 12시간을 비행한 끝에 터키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의 아타 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는 6시간의 시차(원래는 7시간 시차가 있으나 4~10월은 섬머타임)가 있으며 중국 영공운항 허가가 늦어져 당초 시간보다 2시간여가 늦은 밤10시경에 도착하였다.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은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국민적 영웅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딴 공항이다.

이스탄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비잔티움 시대, 콘스탄티노플 시대, 오스만 제국 시대를 거쳐 발전한다. 324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수도로 채택되면서 신로마(New Rome)로 개칭되었다. 330년에는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후에 콘스탄티노플로 다시 개칭되었다. 1261년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 치하에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수도가 앙카라로 옮겨졌고, 콘스탄티노플은 1930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칭되었다.

이스탄불은 터키의 경제, 문화적 중심지이며, 정치적 수도인 앙카라와 대등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 면적은 534km²이며, 인구는 1,348만 명(2011년 기준)이다.

【 성소피아 박물관(성당) 】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성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까지도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 크리스트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창건했던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되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바뀐 성 소피아 박물관의 중앙에서면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공존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는 역사적인 장소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박물관(성당)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붐볐지만 인위적인 안내선과 같은 박물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관람하도록 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하던 장소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을 넣어 손목을 돌리면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스탄불에서 연수하던 중 경상북도지사 일행과 함께할 수 있었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공동 개최에 따른 협약체결차 이스탄불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머나먼 이스탄불의 거리에서 도지사와 도의원 일행이 만나 세계문화엑스포 추진방향과 도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결코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의 만남을 아쉬워하며 일행은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겨야 했다.

【 Blue Mosque(술탄아흐메트 사원) 】



우리는 히포드럼 광장에서 역사의 숨소리를 잠시 느끼고 옆에 있는 블루 모스크로 이동하였다. 블루 모스크는 터키의 17세기를 지배했던 강력한 왕 술탄 아흐멧 1세가 기존의 웅장한 사원건물인 소피아 성당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싶어서 만든 사원이다. 블루 모스크의 원래 명칭은 술탄 아흐멧 1세 자미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다. 외부에서 블루 모스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기둥에서 아치로 이어지는 선 그리고 돔형 지붕과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이 모스크의 웅장함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다. 터키의 사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돔형 지붕과 첨탑이 있는데, 도대체 첨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첨탑에 관하여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첨탑은 건립주체를 나타낸다고 한다. 1개는 개인, 2개는 정부, 4개는 왕인 술탄이라고 한다. 이 모스크는 6개인데 명령을 잘못 알아들은 신화로 인해 블루 모스크는 6개의 첨탑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 블루 모스크만의 특징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놀랐다. 블루 모스크의 내부는 세밀하게 푸른색 타일(Iznik tiles)로 장식되어 있는 데, 이 또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아울러 타일의 장식뿐만 아니라 모자이크로 장식된 창문은 사원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오늘날 이 사원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내부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 사원은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 곳이 아니고 실제로 예배가 진행되는 사원으로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블루 모스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유럽은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루어 내지만 우리는 경제성과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위하여 굉장히 빨리 짓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미래를 생각한 예술적 가치와 장인정신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 수도중앙사원(Zeyrek Mosque) 】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Fatih) 지구에 있는 모스크 중 하나로 본래는 동방 정교회의 교회였다. 이스탄불에 현존하는 비잔틴 시대 종교 건축물 중 아야소피아(Ayasofya)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원어명은 Molla Zeyrek Camii

1118년에 요하네스 2세(John II Komnenos, 1118-1143 재위)의 황후 이레네 콤네노스(Eirene Komnenos)가 모스크의 일부인 판토크레토르(Pantokrator) 교회를 세웠다. 1124년에 요하네스 2세가 성모마리아(Theotokos Eleousa)에게 봉헌하는 교회를 하나 더 지었고, 1136년에 세워진 대천사 미카엘(Saint Michael)에게 봉헌된 예배당이 두 교회를 연결하게 되었다. 이 예배당은 후에 비잔틴 제국의 콤네노스 왕조(Komnenos)와 팔라이올로고스 왕조(Palaiologos)의 영묘로 사용되었다.

15세기 중엽 오스만투르크가 이스탄불을 점령하며 두 교회와 예배당을 이슬람 모스크 및 종교 교육 시설로 전환했으며, 이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대학자 몰라 제이렉(Molla Zeyre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비잔틴 제국 중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이 반영되어있으며, 이스탄불에 현존하는 비잔틴 시대 종교 건축물 중 아야소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19세기 이후 주변 지역이 황폐화되며 모스크도 오랜 시간 방치되었으나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위협에 처한 기념비적 건축물(Endangered Monument)로 선정한 뒤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 공공시설 방문 및 종교시설 견학

▶ 한국공원과 한국전 위령탑 참배



연수단 일행은 6시간에 걸쳐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앙카라 시내 중심에서 1Km 거리에 있는 '앙카라 한국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위령탑에 참배하였다.



1971년 서울시와 앙카라시가 자매결연을 계기로 설치된 공원으로 6·25 한국전쟁때 도와준 역사적 관계로 인해 양국간 상호 상대방 명칭을 딴 공원을 만들었다. 공원은 1973년 10월 준공된, 한국전에서 전사한 765명의 무명용사들의 영혼을 안치한 우리나라의 다보탑 모형과 같은 9m의 4층탑인 한국참전 터키 기념탑과 1977년 건립한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하는 안내소가 있다.

▶ 카파도키아

○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함. 지형을 이루고 있는 응회암을 파고 들어가 거주공간을 마련함.

○ 활화산이었던 예르지예스산(3917m) 등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지형이 오랜 세월을 걸쳐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켜 부드럽고 쉽게 깎이는 습성을 지닌 응회암지대로 바뀌었음.

○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이외에도 교회와 지성소, 사원들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6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

○ 교회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회화들은 비잔틴 예술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세계유산임.

【 괴뢰메(Goreme) 】 - 바위를 파서 집과 교회로 사용



카파도키아의 중심도시인 괴뢰메는 무슨 뜻일까? 먼저 카파도키아는 ‘말이 아름다운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괴뢰메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괴뢰메(Goreme)는 지형의 수도원과 암굴 교회 등을 총

칭하는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암석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쉽게 파고들어 갈 수 있다. 이 곳은 1세기경쯤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암굴 교회를 지어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후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뒤 교회가 타락하자 신자들은 괴뢰메에 수도원을 짓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괴뢰메 안에서만 무려 총 365개나 되는데 현재는 약 30개의 교회만이 개방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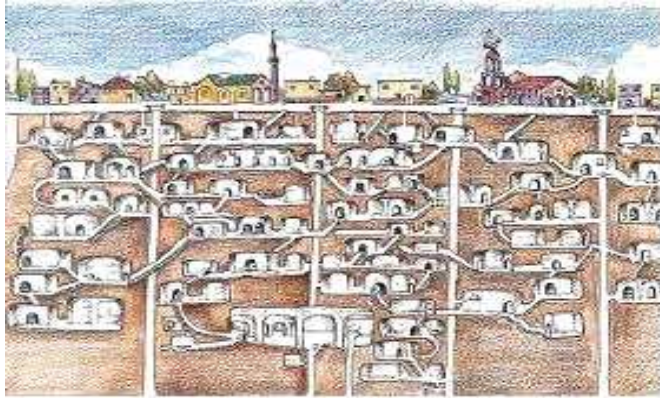
【 우치사르(Uchisar) 】 - 큰 바위산에 공동으로 거주했던 고대 아파트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렸을 성인들을 생각하며 괴뢰메 야외 박물관을 나와 다음 연수지인 카이마클르 지하도시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우치사르에 들렀다. 비둘기 계곡 우치사르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바위산을 깎아 만든 성채였다. 은둔자의 마을로 불렸던 이 천연의 요새는 응회암의

부식 작용으로 별집 모양의 바위산이 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위대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카이마클르 지하도시(Derinkuyu)】



우치사르에서 짝막한 시간을 보내고 카이마클르 지하도시에 도착했다.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개미집 같이 생겼는데, 그 의미는 '깊은 우물'을 뜻한다. 4,000년 전 히타이트 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곳은 그 역사에 비해 늦게 세상에 알려져서 더욱 신비로웠다.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총 20층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하도시로 현재는 8층까지 개방하였는데, 막상 아래로 내려가 보니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단순한 규모가 아니었다. 초기 기독교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 들은 사람들은 수용인원이 많아지면서 더욱 더 공간을 넓히면서 깊숙이 파고 내려감으로 인해 점점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우리는 내려가면서 비좁은 여러 통로를 지나갔는데 몸을 숙이고 내려가야 할 정도로 비좁았는데, 이는 병사들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올 경우 마음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하도는 생각과 달리 방이나, 부엌, 교회, 곡물저장소, 동물 사육장, 포도주 저장실, 성찬 및 세례식을 행한 장소, 신학교, 지하매장지 등 다양한 장소를 갖춘 완전한 도시와 같았다. 게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신할 수 있는 지하터널이 9km나 이어져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저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가슴 한켠이 착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도시가 카파도키아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 착잡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한번 놀랐다. 직접 들어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곳인 카이마클르를 떠나며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의 연수일정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다.

□ 고대 문화유적지 관리 비교분석

▶ 에페소 - 소아시아시대의 수도



에페소는 이스탄불에서 남서쪽으로 336km 떨어진 이즈미르(Izmir) 주의 주도인 이즈미르로 비행기로 1시간을 날아간 후 다시 버스로 50km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에페소는 이즈미르 주의 셀축에 있다. 입구에 우리나라 모 기업의 로고가 선명한 한글 안내판이 번듯이 서있었다. 여러모로 세계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에페소는 BC6,000년경인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지가 형성된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이다. BC300년경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리시마코스 장군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도시가 건립되어 헬레니즘과 로마시대 에게해 연안 항구도시로서 교역의 중심지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에페소에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대건축물인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신 신전을 비롯하여 헬레니즘 시대의 아고라와 극장, 하드리아누스제의 신전, 케르스스의 도서관 등이 있다.

한때 2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도시중 하나로 손꼽혔으나 해안선의 퇴적으로 인한 항구기능의 상실과 더불어 퇴적시 형성된 습지의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의 창궐로 하나둘 도시를 떠나면서 쇠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한다. 지중해 연안은 1년중 절반이상이 고온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으로 모기가 없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이 도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이다.

에페소는 터키의 문화유적이 아닌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유적으로 터키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을 1896년 오스트리아 고고학회의 노력

으로 발굴을 시작하여 현재 전체의 16%정도 발굴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제는 주요 관광지가 되어 수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 하였을 때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에베소를 가득 메우고 있어 굉장히 부러웠다.

에베소는 넓은 지역에 산재한 모든 유물을 관광객이 가까이 가서 살펴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를 바로 눈앞에서 살펴봄으로서 당시의 도시의 번영을 보다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유적과 함께 노천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로마시대 검투사 공연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이 유적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하드리아누스 신전

도미티안 신전이후 두 번째로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신전이다. 2세기 경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하드리안 황제와 에페소의 시민,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해 지어졌다.

건물은 다른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손실되었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셀수스 도서관 -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셀수스를 기념하는 도서관



에페소 유적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고대 로마제국의 유산이다. 135년 줄리우스 이퀼라가 그의 아버지인 셀수스를 위해 지었다고 한다. 셀수스는 당시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통치 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셀수스를 위해 지었기에 도서관 아래에는 셀수스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당시 만2천여권의 양피 장서를 소장한 이 도서관은 양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도록 벽체를 이중으로 하는 등 상당히 과학적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셀수스 도서관 입구에는 지혜, 사색, 학문, 미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여신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은 복제한 것으로 원래의 여신상은 당시 이곳을 발굴한 오스트리아 고고학회에 의해 옮겨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에베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부분 또한 우리와 유사하여 문화재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 로마시대의 원형대극장



기원전 3세기경에 돌로 만들어진 야외극장으로 로마시대에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되어 연극과 같은 공연 혹은 시민회의 등이 열린 곳이다. 약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야외극장처럼 산기슭의 경사와 높이를 이용해 반원형으로 지어졌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을 등

지고 건설하여 별다른 음향시설 없이도 아래쪽에 위치한 무대에서 내는 소리가 높은 곳까지 잘 전달된다고 한다.

만들어진 당시 초기에는 공연을 위한 곳으로만 이용되었지만 이후 로마 제국의 유행에 따라 검투사 혹은 맹수와의 결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자료수집

▶ 파묵칼레 (Pamukkale)

데니즐리(DEMIZLI)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묵칼레는 작은 농촌마을이다. 터키어로 파묵(목화), 칼레(성) 즉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파묵 칼레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에 목화밭으로 유명하였다.

우리 일행은 파묵칼레에서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와 관광객 유치 운영 현황을 살펴 보았다. 파묵칼레는 터키 남서부의 온천지대로 고대 로마시대의 도시 유적이다. 석회층은 수 천년 동안 지하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온천수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지표면에 수많은 물웅덩이와 종유석, 석회동굴 등을 만들었다. 1988년에 석회층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히에나폴리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의 하나이다.

◆ 파묵칼레(Pamukkale, 석회층)

먼 곳에서 바로 본 파묵칼레 석회층은 산 중턱에 위치한 하얀 돌이 반짝이는 거대한 규모의 대리석 채석장처럼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드러나는



파묵칼레의 형상은 우선 석회층 자체의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높고 낮은 수많은 절벽을 흘러내리며 형성된 온천웅덩이와 석회층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는 어느 위치에서도 전체를 사진에 담을 수 없다.

파묵칼레는 예전에는 석회층에서 직접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할 수 있었으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 것만 허용하고 있었으며 목욕은 하지 않고 온천수 가운데를 거닐거나 앉아서 족욕을 즐기고 있었다.

빼어난 경관과 함께 실제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먼 오지의 작은 촌락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었다.

◆ 히에라폴리스(Hierapolis)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파묵칼레의 언덕위로 온천을 이용한 고대 목욕탕 유적이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있다. 히에라폴리스는 1988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유적은 기원전 2세기 페르가몬 왕조의 터전이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스러운 도시를 뜻하는 ‘히에라폴리스’로 불렸고 한때 인구 8만에 이르는 큰 도시였다.

1354년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잊혀진 것을 1887년 독일 고고학자 카를프만이 발견하였다.

이곳에는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과 1,000여 개의 석관이

남아 있는 고대 공동묘지, 목욕탕 등 많은 유적이 폐허가 된 채 넓게 흩어져 있다. 목욕탕과 함께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석관들이 치료와 휴양을 위해 몰려들었던 병자들의 무덤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묵칼레와 히에라폴리스의 관리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구역을 개방하여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까지도 스토리텔링을 두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었다.

훼손을 우려한 무조건적인 보존과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에 대한 고찰을 해보게 된다.

□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수집

▶ 그랜드바자르 (Grand Bazaar, Covered Bazaar)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의 카파르 차르쉬(Kapar Carsi)는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대형 실내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그랜드 바자르로 알려져 있다. 1461년 메메드2세가 나무로 지은 시장이었으나 잦은 화재로 재건을 거듭하여 벽으로 둘러 쌓인 돔식으로 된 건물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비잔틴 시대부터 동서양의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20만평에 이르는 면적에 5,000여 개의 상점에서 금, 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혁류, 카펫, 향신료, 도자기와 기념품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루 25~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오랜 역사와 명성이 묻어나는 그랜드바자르는 우리의 전통시장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필품 구입과 생계를 위한 장이라면 터키의 그랜드바자르는 국제 교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 옛날에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물과 건물사이를 돔형의 영구적인 지붕으로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과 그것이 오늘날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부러워졌다. 우리의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이 임시방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터키 연수의 단상 1

터키를 다녀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터키의 건물에는 고층이건 단층이건 대부분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저탄소시대 에너지 절약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한 적이 있다.

터키는 산유국이면서도 전기가 부족하고 기름값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이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9유로(2,900원정도), 디젤유는 1.4유로 (2,100원정도).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1,900원대, 디젤유 1,700원대와 비교해 보면 휘발유는 1.5배, 디젤유는 1.2배정도 비싸다.

이것을 국민1인당 GDP와 함께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GDP가 2만1천달러인데 반해 터키는 1만1천달러로 우리의 52%수준이다. 실제 터키 일반 직장인의 월 봉급이 우리돈 100만원 정도면 좋은 것이라고 하니 소득수준과 함께 비교해 보면 휘발유는 약 2.9배, 디젤유는 약 2.3배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리터당 휘발유 5천원, 디젤유 4천원을 줘야 한다면, 그러면서도 전기가 절대 부족한 환경이라면 우리도 건물 옥상마다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터키 연수의 단상 2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원 등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는 정교하게 가공한 돌로 포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반영구적이면서 유지보수에도 좋고 일반적인 견치석 포장보다 미관적으로도 아름답다.



■ 터키 연수의 단상 3

도시나 시골 어느 곳에서든지 사방으로 눈을 돌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국기와 높은 곳에서 휘날리고 있는 대형 국기가 눈에 띈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항상 국기를 보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의 여러나라들도 관공서 등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과는 별개로 대형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 고대문화유적지 보호실태 조사

▶ 그리스 아테네 (Athens)

아테네는 3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수도로,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테나이(흔히 복수형 으로 Athenai/Ἀθηναί), 현대 그리스어로는 아티나(Athína/Ἀθήνα)라고 하는데, 시의 이름은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아테네는 그리스 도시국가(폴리스)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곳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의 철학자를 배출한 학문과 철학, 문학의 도시였다. 특히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에서 발전한 정치·문화적 사상은 오늘날 까지 남아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써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발원지로 인정받고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습하다. 아테네는 유럽에서 맑은 날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름 평균 기온은 32℃이며, 겨울에도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영상 기온을 유지한다.

아테네 자치시(Municipality of Athens/Dimos Athinaion)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6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7개의 구(municipal districts/ demotika diamerismata)를 두고 있다.

◆ 아크로폴리스(acropolis),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자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재건하였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여러 신전이 세워지며 신앙의 중심지였기에 아무나 못 올라가던 곳이다. 해발 156m가량의 석회암 언덕 위에 서쪽 입구를 제외한 세 방향은 모두 절벽

이며 그곳에 성벽을 쌓았고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시내가 그대로 보인다.

지금 남아 있는 플로푸라이아는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

였으며 옆으로 니케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파르테논 신전과 에렉티온 신전이 들어서 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BC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 자리에 기원전 448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16년에 걸쳐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에 의해 완성된 아테네의 수호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도리스식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작이다.

유네스코에서는 2,500년의 세월을 버텨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1987년 파르테논 신전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등재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의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사용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시기에도 한창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다. 신전의 많은 기둥이 보수를 마치고 복원되었으며 대형 타워크레인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그리스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아테네 국회의사당



근대 그리스의 초대왕 오토의 왕궁이었던 건물로 19세기 신고전주의 건축물이며 1934년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으나, BC 5세기 초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과두독재(寡頭獨裁)국가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독재 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의 그리스 국회 의사당 건물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어렵게 민주주의를 실현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자체보다는 민주주의를 되새김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방문해보아야 하는 곳이다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 마침 건물 좌우측 계단 입구를 지키는 위병 3명을 교대시키는 위병 교대식이 있었다. 넓은 광장에서 근엄하게 열린 교대식은 사열에 나온 위병들의 규모에 비해 너무 조촐하게 끝이 났지만 수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광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우리나라 국립묘지

와 같이 엄숙한 분위기로 무명 용사에 대한 넋을 위로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은 관광객의 주목을 받고 관광객이 몰릴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런 세세한 부분이 관광객을 모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IV. 구정에 반영해 볼만한 시책

1. 테마별 문화재와 관광지 규모 대형화

- 에페소나 아크로폴리스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보면 인접한 여러관광 요소를 하나의 관람권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요소간 스토리텔링의 연계는 물론, 적절한 관람시간이 요구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음.
- 우리의 경우 광주 권역에는 한계가 있고 전라남도에 있는 문화재 및 관광 코스 또한 우리 시와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음.
- 이러다 보니 스토리텔링의 연계 곤란과 요소별 짧은 관람시간이 인해 관람객의 만족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됨.
- 그러므로 전라남도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관람권역을 확대하여 역사성을 강조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2.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

-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1호로 등재된 문화유적으로서 보존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복원사업이 진행중임
- 흔적(터)만 남아 있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 광주·전남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철저히 세심한 고증을 거쳐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3. 대형 태극기 게양을 통한 국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환경속에 높은 국방예산 편성 및 병역 의무가 있으나 전후세대의 경우 국가관이 약화되고 있음.
- 관공서에서 국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으나 게양 위치가 낮고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의례적인 게양에 그치고 있음.
- 어디서나 잘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 애국심 고취 유도

4. 주택가 도로 등 포장 개선

- 현재 주택가 도로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포장 등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잦은 보수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물이 흠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여 지하수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음.
- 석재를 가공한 정밀한 시공으로 영구적 사용을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는 포장 재질 사용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야 함.

5. 지방의회 운영 관련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 5백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임.

- 의회는 집행부와 주민에게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 아닌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이라는 인식에 공감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통한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임.
- 그리스 지방의회는 경우 우리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의 문턱이 낮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의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제기된 민원과 제안들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함. 우리 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마인드를 새롭게 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V. 연수를 마치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각양각색의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세계는 빠르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내부적으로만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같은 매체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의 도시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즉, 도시를 세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지와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번 연수는 선진지의 정치·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러나 터키·그리스 연수 일정이 7박 9일로 다소 짧았으며, 언어 소통 상에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연수를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터키와 그리스의 문화·관광과 도시 조성 상태 등 여러 정책들을 체험하면서 국제적 시야가 넓어진 것은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략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터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터키는 3% 정도인 유럽에 속하는 트레이스 반도와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는 아나톨리아 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상으로 보면 터키는 아시아에 속하는데 그들은 유럽에 속하고자 하는 속내가 보였다. 아마도 EU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EU에 가입하면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그들은 유럽의 문화가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EU에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럽의 문화가 뛰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유럽의 문화에 뒤쳐지지 않고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세계화하는 데 너무 서툴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연수지역을 돌아다니는 내내 우리를 반겨주는 터키 사람 때문에 낯선 이국땅을 돌아다녀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형제의 나라라며 우리를 반겨 주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터키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이드 말에 의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이유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터키의 대통령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바로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터키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케말아타튀르크 터키 초대 대통령이었다. 굉장한 애국자인 그는 “터키인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며 오직 터키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다시금 되새겨봄직 하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초대 대통령이 건설한 터키의 지방자치제도는 어떠한지 궁금했다. 이스탄불 시의 경우 시장이 의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기관통합형과 분리형의 장점만을 지향한 기관혼합형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논하기에는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에 접어두기로 했다. 다만, 얼마나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주민을 위하여 헌신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터키는 많은 문화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산유국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기름값이 비쌌는데 이는 정부의 유류 소비절약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 채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단순히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생각하니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터키의 정책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키 연수 일정 후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였다. 페리 편으로 히오스 섬을 경유하여 아테네 피레우스 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히오스 섬의 심한 풍랑으로 페리 운항이 취소되어 다음날 경비행기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나마 짧은 연수일정 중에 하루를 허비하게 되니 돌아온 지금까지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리스는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는 듯 했다. 민주주의를 논했던 광장에는 저녁이 되면 난민들이 나타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밤에는 그리스인들조차 광장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복지정책, 쓰레기 매립문제 등등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는 듯 했다.

그리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터키에서도 많이 봤던 올리브 나무였다. 그리스는 강우량이 연 50m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 농업이 발달되지 않았다. 어디를 가보아도

땅에는 대리석이 많이 있다. 이렇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로 세계를 제패하였다. 물론 올리브유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들도 올리브유처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할 때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서구는 도시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 문화에 대해 장인정신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스와 터키는 문화재의 발굴·관리와 보존 정책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하다 보니 행정의 일률화로 문화재 관리가 더욱 뛰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터키의 세계적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를 통하여 우리 서구의 재래 시장도 단순히 시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서구의 문화와 결합된 시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시장 개발과 아울러 관광자원 개발도 도시계획과 결합하여 관광산업을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다.

7박 9일의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선진지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정방향과 서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